

전라북도 학생인권심의위원회

결 정

사 건 명 22-학인-00007 기숙사 사감에 의한 학생자치 활동의 권리 등
인권침해

신 청 인 ○○○○(△△고등학교 3년 □□□ 부)

피 해 자 □□□(△△고등학교 3년 학생)

피 신 청 인 ○○○○(△△고등학교 여기숙사 사감)

주 문

1. 전라북도교육감에게

가. 피신청인이 피해 학생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피해 학생과 기숙사 학생들의 ‘자치활동의 권리’, ‘학칙 등 학교 규정의 제·개정’에 참여할 권리’ 등을 침해한 것은 학생을 학교 구성원의 주체가 아닌 지시와 통제의 대상으로 인식하는 낡은 인습과 낮은 인권 감수성에 기인한 것이므로, 학교 교직원을 대상으로 인권 감수성 향상을 위한 특별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나. 「전라북도 각급학교 기숙사 운영 규정」에 따라 해당 학교의 기숙사 운영 체계(기숙사 운영 규정 제정 및 기숙사운영위원회 설치 등)를 점검하고 점검 결과에 따라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다. 기숙사를 운영하는 학교의 기숙사 담당 관련자(교원, 사감 등)에게 정기적인(학기당 1회 2시간 이상) 인권교육을 시행하는 등 기숙사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할 것을 권고한다.

2. △△고등학교장에게

가. 피신청인이 피해 학생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기숙사 전체 학생의 자치활동의 권리를 침해하였으므로, 그 책임을 물어 절차에 따라 처분할 것을 권고한다.¹⁾

나. 상벌점제, 체벌, 그 밖에 인권침해를 포함하고 있는 △△고등학교 기숙사 생활수칙을 학생인권교육센터와 협의하여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인권 우호적으로 다시 개정하도록 권고한다.

다. △△고등학교 기숙사 운영 체계를 점검하고 인권 우호적인 기숙사 운영 계획 수립과 함께, 기숙사 관리 감독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

라. 기숙사 운영을 담당하는 관련자(교원, 사감 등)에게 정기적인(학기당 1회 2시간 이상) 인권교육을 시행하는 등 기숙사에서 인권침해가 발

1) 2022. 6. 8.자로 피신청인이 의원면직하였음.

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할 것을 권고한다.

마. 피해 학생의 '자기결정권'과 피해 학생과 기숙사 학생들의 '자치 활동의 권리', '학칙 등 학교 규정의 제·개정'에 참여할 권리, '징계 등 절차에서의 권리' 등을 침해한 것은 학생을 학교 구성원의 주체가 아닌 지시와 통제의 대상으로 인식하는 낡은 인습과 낮은 인권 감수성에 기인한 것이므로, 학교 교직원을 대상으로 인권 감수성 향상을 위한 특별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구제신청의 개요

가. 접수일자 : 2022. 04. 06.(수)

나. 신청인 : ○○○(△△고등학교 3년 □□□ 부)

다. 피해자 : □□□(△△고등학교 3년 학생)

라. 피신청인 : ○○○(△△고 여기숙사 사감)

마. 신청요지 : 2022. 3.경부터 피신청인이 피해 학생에게 기숙사 자치위원을 사퇴하도록 강요하여 피해 학생의 인격권 등을 침해하였다.

2. 관련 규정

[붙임 1] 과 같다.

3. 당사자 주장

가. 신청인(피해자)의 주장

1) 피해 학생은 2021년 9월, 2학년 2학기에 여기숙사 전체 학생의 투표로 1년 임기의 여기숙사 자치위원회 위원으로 선출되었다.

2) 피신청인은 자치위원을 교체하기로 ▽▽▽ 여기숙사 자치위원장과 사전에 상의하고, 2022년 3월 초부터 피신청인이 여기숙사 자치위원을 교체하기 위해 3학년 각 호실을 방문하였고, 각 호실에 들어가서 “현재 자치위원을 바꾸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요.”라고 하면서 피해 학생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학생들 사이에 확산시켰다. 학생들 모두가 자치위원 교체에 찬성한 것은 아니었다.

3) 3월 24일, 피신청인이 자치위원장을 통해 피해 학생과 ◁◁◁ 학생에게 여기숙사 자치위원 제명 통보를 하고, 3월 27일, 피신청인이 사감실에서 자치위원장, ▷▷▷ 자치위원과 함께 피해 학생에게 자치위원을 그만두도록 압박을 가해 사퇴하게 되었다.

4) 피신청인이 4월 4일경 교장에게 기숙사 업무보고를 하였고, 이 자리에서 교장이 기숙사 자치위원 교체와 관련하여 “선출직인데 임의적으로 탈락시키면 문제”라고 하면서 “한번 봐 주라.”고 지시했음에도 피해 학생에게 자치위원을 그만두도록 압박하였다.

5) 피신청인은 4월 6일경 교장실에서 신청인 등 보호자, 교장, 인성부장 등과의 면담에서 피해 학생에게 자치위원을 그만두게 하였음을 인정하였다.

6) 상벌점을 규정한 기숙사 생활수칙(<모범행동/위반행동> <[필독] 여 기숙사 규칙 및 벌점>)([붙임 2])은 1학년 때부터 단톡방을 통해 공지되었다. 3학년 때의 생활수칙은 1학년 때보다는 완화된 것이고, 교사나 선배들이 이를 전통이라며 지켜야 된다고 이야기하였다. 방 벌점과 개인 벌점으로 나누어 있고, 벌점은 매주 정산된다. 벌점이 많으면 운동장에서 구보를 하고, 벌점 5점에 5바퀴를 뛰고 있는데, 구보를 담당하는 4명의 구보위원이 따로 있고 2명이 한 팀을 이루어 앞뒤로 한 명씩 배치되어 뛰게 되며 구보위원보다 뒤처지면 1바퀴 추가되기도 하였다. 1학년 때부터 운동장에서 구보하는 걸 보았으며, 벌점 때문에 구보하는 걸 학교 구성원들은 전부 알고 있을 것이다. 휴대폰 같은 경우도 일괄수거하고 있으며, 화요일과 목요일 저녁 5:50부터 10:50분까지만 사용하고 각 기숙사 학년장에게 제출해야 하는데, 제출하지 않으면 1분당 1점씩 최대 10점까지 벌점을 받아야 한다.

7) 학교가 학생인권교육센터에 제출한 <기숙사 생활수칙 학생인권 침해요소 체크리스트>(2022. 1. 10. 점검)²⁾는 본 적이 없으며, 이와 관련하여 학교에서 기숙사 자치위원회에 의견을 물어본 적이 없다.

나. 피신청인의 주장

1) 피신청인은 2021. 9. 1.(수) 여기숙사 사감으로 채용되었다. 월요일 교직원회의(8시 10분) 이후에 기숙사 담당 교사 없이 교장과 사감회의를 통해 보고를 하고 업무 지시를 받고 있다. 기숙사 생활담당 교사와 회의를 한 적도 없고, 나이스로 기안을 해 본 적도 없다. 기숙사에서 학교폭력

2) 학생인권교육센터가 도내 기숙사 운영학교에 보낸 문서로 각 학교가 스스로 점검하여 8개 항목 16개 문항에 답한 후 기숙사 학생자치회 대표, 기숙사 생활교육 담당 교사, 학교장이 각각 서명하여 제출하도록 하였음. △△고등학교는 “기숙사에서 상벌점제를 운영하는가?”, “기숙사 학생자치회가 학생들을 지도·감독하고 벌점을 부과하는 선도부 역할을 하는가?” 등의 문항에 ‘해당 없음’이라고 답하였음.

사안이 발생하면 교장에게 보고하고, 이후 처리 과정은 알지 못한다. 채용된 이후 인권교육을 받은 적이 없으며, 사감 업무와 관련한 업무교육도 받지 않았다. 전임 기숙사 사감에게 업무인수인계서(기숙사 일과 관련 내용)만 받았고, 학교로부터 기숙사와 관련한 매뉴얼 등도 받은 적이 없다.

2) 피해 학생이 2021년 2학기부터 아프거나 학교에 나오지 않아서 자주 빠지게 되었고, 자치위원 활동과 관련해서도 다른 자치위원과 갈등이 있었다. 2022년 3월이 되어 피해 학생 때문에 다른 자치위원들이 힘들다고 하소연하고, 신입생도 들어오고 해서 기숙사 자치위원을 바꾸어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여, 자치위원의 변화가 필요한지, 생활수칙에 대해서 토의가 필요한지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해 3월 23일부터 3~4일 동안 3학년이 생활하는 8개 방을 방문하였다. 방에 들어가서는 "자치위원들끼리 의견 일치도 안 되고, 별점을 주는 것도 자치위원들끼리 다르다는 말이 나오는데 너희들 생각은 어떠냐? 자치위원회에 변화가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은 거 같냐, 자치위원을 바꾸게 되면 누가 했으면 좋겠냐?"라고 이야기를 했다. 각 호실별로 자치위원을 바꾸는 것에 대한 찬성, 반대의견, 생활수칙과 관련한 학생회의의 필요성을 노트에 기록하였다. 자치위원 후보로 7명 정도 추천이 있었고, 본인들의 의사를 확인한 결과 ◇◇◇, ■■■ 학생이 자치위원을 맡을 의사가 있었다. 이후 3학년 전체회의를 개최하였는데 자치위원인 ◁◁◁ 학생이 학교에 나오지 않아서 자치위원 개편 문제는 토의하지 않았고, 생활수칙에 대해서만 논의하였다. 이러한 의견 수렴은 본인이 결정하여 진행한 것이고, 자치위원장인 ▽▽▽ 학생과 상의한 것이 아니었다.

3) <모범행동/위반행동> <[필독] 여기숙사 규칙 및 별점>은 3월에 3학

년 학생 중심으로 규칙회의를 하여 정한 생활수칙이고, 카톡의 단톡방을 통해 공지한 것이다. 최종 확정된 것을 피신청인이 확인했고, 자치위원장이 단톡방에 게재하였다. 3월 규칙회의에 대한 회의록은 작성하지 않았고, 학교의 기숙사 담당 부서나 기숙사 운영위원회 등에 보고를 하지 않았다.

4) 3학년 기숙사 방을 방문하고 난 후 사감실에서 자치위원들과의 회의에서 회의 결과를 설명하면서 피해 학생에게 “학교를 너무 자주 빠진다.”, “규칙을 잘 외우지 못한다.”, “소등 체크를 할 때 실수가 있다.”, “학교에서 걸어다닐 때 힘이 없어 보인다.”, “너무 동생 같아서 신뢰가 가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는 피해 학생이 본인에 대해 어떤 이야기가 나왔는지 이야기해 달라고 해서 전달한 것이고, 외모 비하의 의도는 없었다.

5) 3월 24일, 자치위원장을 통해서 2명의 자치위원에게 제명 통보를 한 사실이 없다. ◁◁◁ 학생은 사감실에서 둘이 만나 자치위원을 할 생각이 있냐고 물어보았을 때 학생회 일도 해서 굉장히 바쁘다고 말하면서 스스로 자진 사퇴한다고 이야기했다.

6) 피해 학생이 3월 27일 자치위원들과의 회의에서 피신청인은 “자치위원이 정말 하고 싶은 거냐.”, “왜 하고 싶은 거냐.”, “어떤 면에서 하고 싶은 거냐.”, “네 생각은 어떠냐.”고 물어보았을 뿐 사퇴 압박을 하지 않았고, 제명 통보도 하지 않았다. 학대나 모욕, 따돌림도 절대로 아니다.” 자치위원을 계속 한다면 학생들에게 나온 불만들을 어떻게 고쳐나가야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하라.”는 말은 ▽▽▽ 자치위원장이 한 말이었다. 피해 학생이 마지막에 자치위원을 그만두겠다고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나가길래 따로 불러서 서운한 감정이 있으면 잘 풀고 가라며 얘기했고, 안아주면서 달래주었다. 28일, 피해 학생이 사감실로 찾아와서 “어제는 분

위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만둔다고 했다.“며, “1, 2학년들에게 자기가 일을 못해서 짤렸다는 걸로 공포해 달라.”고 요청해서 “아직 아무것도 정해진 것도 없고, 그런 식으로 말하면 너한테 좋지 않을 거 같다.”, “다 확정되고 나서 이야기하자.”라고 말하고 돌려보냈다.

7) 4월 3일(일), 피해 학생과 ◁◁◁ 학생한테 “교장 선생님에게 최종적으로 보고를 하고 자치위원을 바꾸게 된다면 ◇◇◇, ▮▮▮ 학생하고 방을 바꾸게 될 거 같다.”, “아직 결정이 안 난 거니까 지금은 기다려라.”고 이야기를 한 거 같다.

8) 4월 4일(월), 교직원회의 후에 교장실에서 사감회의가 있었는데, “문제가 많아서 자치위원 2명을 바꾸려고 하는데 바뀌도 되겠느냐.”고 이야기를 하였고, 교장은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다음에 또 그러면 가차 없이 자르라.”고 하였고, 두 학생에게 그대로 전달하였다. 피해 학생에게 교장 선생님 말씀도 있고 하니까 한번 기회를 줄 테니까 생각해 보라고 하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었다.

9) 기숙사학생회 자치규칙에 ‘임원이 임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 보궐 선거로 선출’한다는 조항을 보았고, 남기숙사에서 자치위원이 자주 바뀌어서 자치위원을 교체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피해 학생에게 2021년 2학기에도 규칙을 어긴 것과 잘못된 태도에 대해 주의를 주었고, 재발생 시 자격 박탈하겠다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기회를 주었다.

10) 기숙사 생활수칙에 구보 등 체벌 조항 등 인권을 침해하는 조항이 있으나 본인이 바꾼 것은 거의 없으며, 관습대로 해오던 것을 시행했다. 교장은 기숙사 담당교사, 인성인권부장 교사와 회의를 해 보라고 하였지만 회의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

11) 4월 6일, 신청인 등 피해 학생의 보호자와 교장실에서 면담한 이후, 교장이 피신청인에게 "자치위원이 학생들을 지도하는 것을 시키지 말고 사감이 직접 하라."고 말해서, 피신청인은 "상벌점제가 어느 정도 있어야 학생 관리가 된다."라고 교장에게 이야기하자, 교장이 "자치위원들 시키지 말고 사감이 직접 하라."고 하였다. 그 이후로는 피신청인이 직접 하고 있으며 별점이 많은 학생은 분리수거, 아침 소등, 슬리퍼 정리 등을 하고 있다.

12) 해당 학교가 학생인권교육센터에 제출한 <기숙사 생활수칙 학생인권 침해 요소 체크리스트>(2022. 1. 10. 점검)를 본 적이 없으며, 피신청인에게 이 문건과 관련한 의견을 물은 적도 없었다.

4. 인정사실과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신청인은 2022년 3월 중순경 '자치위원 교체'와 '생활수칙' 관련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자치위원실을 제외한 여기숙사 3학년 8개 방을 방문하였다.

2) 3월 24일, 3학년 전체회의를 통해 '생활수칙'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후 자치위원장이 피신청인의 확인을 받은 최종안(<모범행동/위반행동> <[필독] 여기숙사 규칙 및 별점>)을 단톡방에 게재하였다.

3) 3월 27일, 피신청인이 사감실에서 자치위원들과 회의를 하면서 피해 학생에게 자치위원을 계속 맡을 것인지 물었고, 피해 학생이 그만두겠다고 하였다. 다음 날, 피해 학생이 전날의 자진 사퇴 의사는 분위기 때문에

한 것이므로 찢렸다고 발표해 달라고 하였다.

4) 4월 3일, 피신청인이 피해 학생과 ◁◁◁ 학생에게 '교장에게 보고한 후 자치위원을 바꾸게 된다면 ◇◇◇, ▮▮▮ 학생과 방을 바꾸게 될 거 같다.', '아직 결정이 안 난 거니까 지금은 기다려라.'고 말했다.

5) 4월 4일 8시 30분 교직원회의 후에 교장실에서 교장과 사감회의를 가졌고, 이 회의에서 피신청인이 피해 학생과 ◁◁◁ 학생 대신에 ◇◇◇, ▮▮▮ 학생으로 자치위원을 바꾸고자 한다고 보고하였고, 이에 교장은 "한번 더 기회를 주고 다음에 또 그러면 가차 없이 자르라."고 하였다. 기숙사 저녁 회의에서 피신청인이 교장의 말을 피해 학생과 ◁◁◁ 학생에게 전달하면서 피해 학생에게 한번 기회를 줄 테니까 자치위원을 계속할 것인지 답변을 달라고 하였다.

6) 4월 6일 교장은 신청인 등 피해 학생의 보호자와 면담한 이후에 피신청인을 따로 불러 "자치위원이 학생들을 지도하는 것을 시키지 말고 사감이 직접 하라."고 말했으며, 피신청인은 "상벌점제가 어느 정도 있어야 학생 관리가 된다."라고 하였다. 그 이후로 피신청인이 청소상태나 소등 여부 등을 직접 점검하고 있으며 별점이 많은 학생은 분리수거, 아침 소등, 슬리퍼 정리 등을 하고 있다.

7) 피신청인은 학교가 학생인권교육센터에 제출한 <기숙사 생활수칙 학생인권 침해 요소 체크리스트>를 열람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1) 총론

「대한민국 헌법」 제10조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제12조는 신체의 자유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교육기본법」 제12조 제1항은 학생의 기본적 인권은 학교 교육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4(학생의 인권보장)는 학교의 장은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관련 법률 등을 살펴보면, 학생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 존재로서, 신체적·정신적으로 성장해 가고 있는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서 건강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특별한 보호와 배려를 받는 존재이다.

「초·중등교육법」 제17조(학생자치활동)는 ‘학생의 자치활동은 권장·보호되며,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 제18조(자치활동의 권리)도 동아리, 학생회 그 밖에 학생자치조직의 구성과 운영 등 학생의 자치활동을 보장하고, 학교의 장은 학생자치활동의 자율과 독립을 보장하고, 학생자치조직의 대표는 보통·평등·직접·비밀 선거에 의해 선출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 제19조(학칙 등 학교 규정의 제·개정에 참여할 권리)는 학생은 학칙 등 학교 규정의 제·개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학교장은 규정의 제·개정 과정에서 학생들의 의견을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절차를 거쳐 수렴하여야 하며, 학생회 등 학생자치기구의 의견 제출권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살펴볼 때, 관련 법규 등에 의거하지 않고 학교장이나 교사가 임의로 학생자치 조직의 대표

들에 대한 자격 여부와 사퇴 등에 대해 개입하는 것은 학생자치 활동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초·중등교육법」 제18조(학생의 징계)는 학교의 장에게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징계하거나 그 밖의 방법의 지도할 수 있으며,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0조(교직원의 임무)는 교사에게 학생을 교육할 권한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 제26조(징계 등 절차에서의 권리)는 학생의 징계는 적법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고, 학생에 대한 지도방법과 절차에서 학생의 인권을 침해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법규들을 살펴보았을 때, 학생의 징계 및 지도 권한은 학교장에게 있고 학교장에게 그 권한을 위임받을 수 있는 것은 교사에게 국한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학생이 학생에게 벌점을 부여하는 권한 등을 주는 것은 근거가 없는 임의적 활동이고, ‘징계 등 절차에서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2) 피해 학생의 자기결정권과 자치활동 권리 침해

피신청인은 피해 학생에게 해당 학교 여자기숙사 자치위원(이하, ‘자치위원’)을 그만두라고 압박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1)항과 같이 피신청인은 2022년 3월, 자치위원실을 제외한 3학년 여자기숙사 방을 방문하여 기숙사 자치위원 개편과 생활수칙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고, 위 인정사실 4)항, 5)항과 같이 자치위원인 피해 학생과 <<<

학생을 다른 두 명의 학생으로 바꾸겠다고 교장에게 보고한 사실이 있다.

해당 학교 「기숙사 학생 자치회 규칙」(제정 2018. 3. 1.) 제5조(임원 선출 및 임기)는 ‘임원 선출 및 임기는 각 호와 같으며 민주적 절차에 따라 선출한다.’라고 하였고, 임원인 ‘자치위원은 전 학년이 투표로, 학년 장은 해당 학년, 호실 장은 각 호실에서 선출’하며, ‘임기는 1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자치위원은 1년 임기의 선출직이기 때문에 자치위원이 바뀌는 경우 기숙사 전 학년 학생투표를 실시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신청인이 피해 학생에게 자치위원을 계속할 것인지 수차례 묻고, 3학년 학생들과 자치위원 개편을 논의하여 새로운 자치위원을 추천한 것은 해당 학교 「기숙사 학생 자치회 규칙」을 위반하고, 학생자치활동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훼손한 행위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피신청인이 피해 학생뿐만 아니라 해당 학교 기숙사 전체 여학생의 자치활동의 권리를 침해하였다.

또한, 「대한민국 헌법」 제10조는 모든 사람은 행복추구권을 갖고 있다고 명시하고 있고, 행복추구권은 자기결정권이 전제되는³⁾ 권리로, ‘자기결정권’은 개인의 일정한 사적 사안에 관하여 국가나 타인의 간섭을 받지 않고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그러므로, 피해 학생 또한 다른 사람의 간섭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자신의 의사에 따라 자치위원을 계속할 것인지, 그만둘 것인지를 결정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피신청인은 피해 학생의 의사와 상관없이 3학년 학생들과 자치위원 개편을 논의하고, 다른 학생을 자치위원으로 추천, 학교장에게 보고하였다. 따라서, 피신청인이 피해 학생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3) 헌법재판소 1990. 9. 10. 89헌마82 결정 등

판단한다.

3) 학칙 등 학교 규정의 제·개정에 참여할 권리와 그 밖의 권리 침해

위 인정사실 2)항과 같이 피신청인은 3학년 학생들에게 이른바 ‘생활 수칙’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후 <여기숙사 규칙 및 별점>을 기숙사 학생 단톡방에 게재하였다.

위 「기숙사 학생자치회 규칙」 제10조(생활 수칙 제정) ①항은 ‘기숙사 생활수칙은 입사 학생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기숙사 구성원(입사 학생, 사감) 및 이해관계자(학부모, 교원 등)의 의견을 반영하고 민주적 절차에 따라 제정한다.’고 규정하였고, 같은 「기숙사 학생자치회 규칙」 제6조(심의사항)는 “자치회는 ‘기숙사 생활수칙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기숙사 학생자치회 규칙」 등에 따르면, 기숙사 ‘생활수칙’을 제·개정하기 위해서는 기숙사 구성원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하며, 기숙사 자치회와 기숙사 운영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은 인정사실 2)항과 같이 해당 학교 「기숙사 학생자치회 규칙」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임의로 3학년 여학생들의 의견만을 수렴하여 여기숙사 학생 단톡방에 기숙사 ‘생활수칙’(<여기숙사 규칙 및 별점>)을 게재하였다.

따라서, 「기숙사 학생자치회 규칙」 등을 위반하여 피신청인이 기숙사 ‘생활수칙’을 임의로 학생 단톡방에 게재한 행위는 여기숙사 학생들의 ‘학칙 등 학교 규정의 제·개정에 참여할 권리’ 침해에 해당한다.

위, 인정사실 6)항과 같이 피신청인이 학생 단톡방에 게재한 기숙사 ‘생활수칙’(<여기숙사 규칙 및 별점>)을 살펴보면, 기숙사 자치위원이 학생의 생활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하여 상벌점을 부과하는 상벌점제를 실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아울러, 별점이 많은 경우 벌칙으로 운동장을 뛰는 구보 등의 체벌을 실시하고 있음도 알 수 있다.

위 ‘생활수칙’ 등으로 볼 때, 해당 학교는 기숙사 학생을 상과 벌로 길들이고 통제하는 방식의 상벌점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학생이 학생에게 상점과 벌점을 부여하는 부적절한 방법으로 학생 생활교육을 실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학생이 학생에게 상점과 벌점을 부과하고, 심지어 학생의 벌칙 수행을 위해 이른바 ‘구보위원’인 학생이 ‘구보’를 지시하고 감독하는 등의 교육방법은 학생을 차별, 구별짓기한 행위이며, 학생지도(교육)권을 아무 근거없이 학생에게 위임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피신청인이 피해 학생들의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와 ‘징계 등 절차에서의 권리’ 침해뿐만 아니라 교사의 교육적 권한도 침해하였다.

다. 소결

피신청인이 피해 학생뿐만 아니라 여기숙사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한 행위는 피신청인의 낮은 인권 의식에 기인한 것은 분명하나, 여기숙사 학생들의 인권침해 내용과 범위 등을 고려할 때, 기숙사 사감 개인에게만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다. 위 인정사항 7)항으로 짐작할 수 있듯이 △△고등학교는 기숙사 운영 체계가 분명하지 않으며, 평소 학교 관리자가 기숙사 운영 전반을 관리 감독하지 않는다는 사실도 알 수 있다.

따라서, △△고등학교는 기숙사 운영 체계 전반을 점검하고, 기숙사 사감이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기숙사 관리 감독 방안을 반드시 수립하여야 한다.

5. 결론

위와 같은 이유로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 제49조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2. 6. 23.

전라북도 학생인권심의위원회 위원장 조 기 영 (인)

[붙임 1]

관련 법령

가. 「대한민국 헌법」

제10조(인간의 존엄성과 기본적 인권의 보장)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나. 「교육기본법」

제12조(학습자) ①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은 학교교육 또는 사회교육의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된다.

다. 「초·중등교육법」

제17조(학생자치활동) 학생의 자치활동은 권장·보호되며,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제18조(학생의 징계) ①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징계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다.
다만, 의무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은 퇴학시킬 수 없다

② 학교의 장은 학생을 징계하려면 그 학생이나 보호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18조의4(학생의 인권보장) 학교의 설립자·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20조(교직원의 임무) ① 교장은 교무를 총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도·감독하며, 학생을 교육한다.

④ 교사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한다.

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0조(학생자치활동의 보장) 학교의 장은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학생의 자

치활동을 권장·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③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와 학생의 지도에 관하여 상담을 할 수 있다.

⑧ 학교의 장은 법 제1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지도를 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하되,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마.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

제3조(학생의 인권 보장 원칙) ① 학생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생의 인권은 법령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으로만 제한될 수 있으며, 이 조례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 한다.

③ 학생의 개성과 자율성은 학교생활에서 최대한 존중되어야 한다.

제18조(자치활동의 권리) ① 동아리, 학생회 그 밖에 학생자치조직의 구성과 운영 등 학생의 자치 활동은 보장된다.

② 학교의 장은 학생자치조직의 구성과 운영 등 학생자치활동의 자율과 독립을 보장하고 학생자치활동에 필요한 시설과 행·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학교는 성적, 징계를 받은 사실 등을 이유로 학생자치조직의 구성원 자격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며, 학생자치조직의 대표는 보통·평등·직접·비밀 선거에 의해 선출된다.

④ 학생자치조직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1. 학생자치활동에 필요한 예산과 공간, 비품을 제공 받을 권리
2. 학교운영, 학교 규칙 등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할 권리
3. 학생자치조직이 주관하는 행사를 자유롭게 개최할 수 있는 권리.

제19조(학칙 등 학교 규정의 제·개정 참여할 권리) ① 학생은 학칙 등 학교 규정(이하 '학교규정'이라 한다)의 제·개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의 장은 학교규정의 제·개정 과정에서 학생들의 의견을 민주적이고 합

리적인 절차를 거쳐 수립하여야 하며, 학생회 등 학생자치기구의 의견 제출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 ③ 학교의 장은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여 학교규정을 제·개정하고, 이를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26조(징계 등 절차에서의 권리) ① 학생의 징계는 징계사유에 대한 사전 통지, 공정한 심의기구의 구성, 소명 기회 보장, 대리인 선임권 보장, 재심요청권의 보장 등 적법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 ② 학교의 장은 징계와 그 전후의 절차에서 징계대상 학생의 회복과 복귀를 목표로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지역사회, 보호자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

- ③ 학교의 장은 징계 내용을 공고하여서는 아니 되며, 상벌점제를 포함한 학생에 대한 지도 방법과 절차에서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5조(인권옹호관의 직무) ① 인권옹호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학생인권침해에 관한 상담
2. 학생인권침해 구제신청에 대한 조사와 직권조사
3. 학생인권침해에 대한 적절한 시정과 조치 요구
4. 학생인권 관련 실태조사 및 정책 등의 연구·개발
5. 학생인권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 요구
6.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내용에 대한 공포
7. 학생인권교육
8. 그 밖에 위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업무

제49조(학생인권침해 구제신청과 조치) ① 학생이 인권을 침해당하였거나 침해당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학생을 비롯하여 누구든지 인권옹호관에게 그에 관한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구제신청을 받은 인권옹호관은 사건에 대하여 조사한 후 도교육청, 교육지원청, 학교와 교직원에 대한 시정권고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인권옹호관은 그 청구를 각하할 수 있다.

1. 제삼자가 한 조사청구에 대해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
 2. 조사나 상담이 청구될 당시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법원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에 법령에 따른 권리구제절차나 조정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
 3. 조사청구가 익명 또는 가명으로 제출된 경우
 4. 그 밖에 인권옹호관이 상담 및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④ 인권옹호관이 제2항의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 교육감에게 통보하고, 그 요지를 공표하여야 한다.
- ⑤ 인권옹호관으로부터 시정 권고를 받은 도교육청, 교육지원청, 학교와 교직원들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권고사항을 이행하여야 하고, 조치결과를 즉시 인권옹호관과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인권옹호관의 권고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붙임 2]

여기숙사 생활수칙

[모범행동 / 위반행동]

☐ 모범 (상점)

- * 기숙사 내 공동생활을 위해 봉사하는 행동
- * 자발적 봉사를 통해 타의 모범이 되는 행동
- * 기숙사 발전을 위해 도움을 주는 행동
- * 화재, 응급의료사고 등 기타 사건사고 발생 시 봉사정신을 실천하는 행동

☐ 위반

1. 방 별점

- * 방과 개인 사물의 정리정돈 상태 불량
- 개인 침구 / 캐비닛 정리, 창문 단속, 바닥 쓰레기 정리 등
- * 퇴실 시 소등하지 않거나 전원을 분리하지 않은 경우

방 별점: 기본 1점, 예외) 콘센트, 방충망 중앙정렬 및 창문 잠그기(전체귀가) → 2점 침대 위,
바닥 위 → 물건 개수대로 별점

2. 개인 별점(레드카드)

- * 정해진 일과시간을 어겨 공동체 생활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동 <1>
- 귀교/입퇴실/점호/자습/소등/샤워실 사용 등 일과시간 지각
- * 담당 청소구역의 청소 상태 불량 <1>
- * 자습시간에 정해진 자리를 이동하는 행동 <1>
- * 분실물함에 1주 이상 개인 물건을 방치하는 행동 <1>
- * 냉장고에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을 보관하거나 이름을 기입하지 않고 음식을 보관하는 행동 <2>
- 이름없는 음식물의 주인이 나오지 않을 경우 해당 기수 전체 3점
- * 기숙사 출입일지를 작성하지 않는 행동 <2>
- * 무단으로 방을 이동하는 행동 <2>
- * 소등 이후에 음식을 먹는 행동 <2>
- * 소등 이후에 소란을 피워 다른 학생에게 불편을 끼치는 행동 <2>
- * 사감교사에게 별도의 연락 없이 기숙사 입소 시간을 어기는 행동 <2>
- * 사감교사의 허락 없이 전열기구나 위험물을 반입 또는 사용하는 행동 <3>
- * 교사의 허락 없이 기숙사 개방시간 외에 무단출입하는 행동 <2>
- * 자치위원 또는 사감교사의 합당한 지도에 불응하는 행동 <2>

☐ 인성부

- * 금품 및 귀중품의 절도 행동, * 공용물품 또는 기물을 훼손하는 행동
- * 음주, 흡연, 약물 또는 사행성 게임 등의 일탈행동
- * 자습실 내 인터넷을 통해 음란물 또는 유해매체를 이용하는 행동
- * 언어적/신체적 폭력을 사용하여 다른 학생에게 해를 끼치는 행동

🔊 [필독] 여기숙사 규칙 및 벌점 □

1. 레드카드

벌점 1점 당 레드카드 한 장으로 체크 [벌점 1점=레드카드 1장]

2. 벌칙

- 레드카드 5장 이상인 경우 : 구보, 성경 필사 중 선택
레드카드 개수에 따라 벌칙 수행 ex. 레드카드 6장 → 구보 6바퀴, 부득이한 상황에는 플랭크로 대체
- 방벌점 11점 이상인 경우: 방벌점 -6한 값만큼 벌칙 수행
- 방벌점 11점 이상+레드카드 5장 이상인 경우 : [아침 플랭크+저녁 구보] 또는 [저녁 구보] 중 선택

3. 자치 경고 무시

- 자치위원이 1차례 이상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위반행동을 했을 경우: '자치위원 또는 사감교사의 합당한 지도에 불응(자치 경고 무시)' 항목에 해당하여 레드카드 두 장. ex) 휴대폰 고의적 미제출, 교외 슬리퍼 착용, 귀걸이 및 피어싱 착용, 교복 치마를 접거나 짧게 입는 행동, 기초제품 이외의 화장품 사용하는 행동 등
- 교복 치마 : 오금 위 5cm까지 (접거나 줄여입기 금지)
셔츠, 조끼, 치마 (또는 바지), 넥타이 미착용 시 개당 <1>, 양말 미착용 <1>
 - * 아침퇴실 시 검사
 - 화장 <2> : 매니큐어, 파마, 염색, 귀걸이 (투명 귀걸이 제외), 피어싱, 화장

4. 휴대폰

- 휴대폰 고의적 미제출
- 태블릿 등 공기계 유심
적발 시 레드카드 3장+한 달 압수 (귀가날 휴대폰 지급, 귀교 후 반납) 또는 상황에 따라 '자치 경고 무시'에 해당하므로 레드카드 2장 ex) 자치장에게 휴대폰 사용하는 것을 알리지 않았을 경우
- 휴대폰 제출시간 미준수 : 50분부터 1분 당 레드카드 한 장, 하루 최대 10장까지

5. 일지 작성

- * 출입일지 : 아침퇴실 이후 ~ 하교 시간 전에 기숙사에 입실할 경우 출입일지에 날짜, 이름, 시간, 목적을 기입한다. 미작성(무단출입) <2>
 - * 휴대폰 사용일지 : 사감쌤/자치위원이 자리에 없을 경우, 미작성(자치경고무시) <2>, 휴대폰 반납시간 미리 작성하기 : 미제출 적발 시 <3>
 - * 의약품 사용일지, * 공용물품 사용일지
- 규칙을 잘 지켜 레드카드를 받지 않은 사람들은 혜택 제공(한 달에 학년별로 한 명씩 선정)

기숙사 시간표 및 레드카드 기준

- * 귀교: 귀교일 18:30-20:30 (사감교사에게 별도의 연락없이 늦을 경우 별점), 발열체크
- * 아침: 아침퇴실 시간과 동일, 저녁: 20:50-21:10
- * 아침퇴실: 1학년 7:20까지, 2학년 7:30까지, 3학년 7:40까지
이불 정리 (이불 위에 베개, 인형 등 올려놓기) 수건은 사다리에 걸어두기, 옷걸이 걸어놓지 않기, 창문, 방 문 열기, 침대/바닥 위 물건 개수대로 별점, 캐비닛 열어두지 않기, 소등 <1>, 콘센트 <2>
- * 저녁퇴실: 18:50, 소등 <1>, 바닥/베란다 음식물 <2>, 콘센트, 에어컨 <2>
- * 청소: 21:50, 지각 <1>, 쓰레기통 비우기, 머리카락 3개 이상 <1+@>, 자습실 콘센트 <2>, 자기 청소구역 외에 이동 금지
청소검사: 22:10, 휴대폰 사용 금지, 떠들지 않기, 다른 구역 검사 끝날 때까지 기다리기
- * 점호: 22:20
 - 전체점호: 기수별로 줄맞춰 앉기 (앞에서부터 앉기), 지각 시 1분당 레드카드 1장, 마스크 미착용 <1>, 인원체크 시 마지막 번호 크게 외치기 ex. 서른하나 번호 끝이요 벽에 기대지 않기, 사감쌤, 자치위원 공지에 대답 크게 하기, 걸리면 '죄송합니다' 하기, 휴대폰 사용 금지 (벨소리 무음), 기도하는 사람 학년장 뒤에 앉기
 - 방점호: 두명 씩 줄맞춰 앉기
지각 <1>, 마스크 미착용 <1>, 음식물 <1>, 소란 <1>, 방 이동 <1>
공지할 때 대답 크게 하기, 기도 순서 미리 정해놓기
- * 자습: 23:00
자리에 착석, 10분 동안 이동 금지 (정수기, 화장실 사용 X)
자리 이동 <1>, 소란 <1>, 마스크 미착용 <1>
기숙사 올라갈 수 있는 시간: 자습 첫번째 시간 50분부터, 자습 두번째 시간 30분부터
- * 소등: 23:00
자기 침대 위에 앉아있기, 불 켜고 문 열어놓기, 10분 동안 이동 금지 (정수기, 화장실 사용 X), 소등 이후에 불을 켜는 행동 <1>, 소등 이후 태블릿 등 공기계 사용 <2>, 음식물 <2>, 소란 <2>, 방 이동 <2>, 소등 이후 샤워실 사용 <1>, 23:50-24:00 00:50-01:00